

동남권 거점대학의 위상을 다지며 동북아 핵심대학으로 도약 - 부산대학교 -

대학발전계획과 캠퍼스 특화 발전

캠퍼스별 특화와 과감한 구조개혁

④ 대학 혁신과 특화된 캠퍼스벨트 구축



부산대학교는 급변하는 내·외부환경에 맞서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의 실행과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감한 내부 혁신을 도모하면서 ‘국내 TOP 5, 선도 분야 World 100’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학발전 로드맵에 따른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부산대학교의 발전계획은 교육의 국제화·고객지향화, 연구의 세계화·실용화, 지역적·세계적 학문 특성화, 동남권 거점대학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 확보, 첨단교육환경 조성, 연구여건 개선, 국제교류 활성화, 대학행정 선진화, 재정 확충, 캠퍼스 확장 등을 통하여 세계적 명문으로의 도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특성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분야 특성화, 그리고 세계적 선진학문 분야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부산대학교는 부산-양산-밀양으로 이어지는 특화된 캠퍼스벨트를 구축하여 복수 캠퍼스시대를 열었다. 양산 제2캠퍼스 조성과 밀양대학교

세계로 비상하는 부산대학교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는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또 한번의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 상아탑의 의미를 넘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부산-양산-밀양을 잇는 동남권의 특화된 캠퍼스벨트를 구축하여 동북아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국제적 위상을 지닌 동북아의 물류거점도시인 부산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환태평양의 '관문 대학'에 걸맞은 싱크탱크로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IT 전문가 한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고, 대학의 역할도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밀양대학교와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통합부산대학교가 출범함에 따라 부산 제1캠퍼스의 현대화, 양산 제2캠퍼스의 의생명과학 허브 조성, 밀양 제3캠퍼스의 나노/바이오 특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오는 5월에는 밀양캠퍼스에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IGB와의 공동연구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제2캠퍼스를 첨단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수업적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여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 개교 60주년을 '국내 TOP 5, 선도 분야 World 100' 진입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60년의 연륜을 딛고 60억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명문대의 꿈을 현실로 만들며 'PNU(Pusan National University)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와의 통합을 전기로 제1캠퍼스의 현대화, 의생명과학 중심의 양산 제2캠퍼스 조성, 밀양캠퍼스의 나노/바이오 분야 특화를 통한 특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캠퍼스는 부산대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메인캠퍼스로서 캠퍼스 현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양산캠퍼스는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특화되는 의료허브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옮겨가고 첨단 제2대학병원이 들어서는 등 세계 수준의 의생명과학캠퍼스로 조성된다.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되는데, 이미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설립했으며, 오는 5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GB와 함께 공동연구센터를 오픈하여 첨단 생물소재 및 BNT 분야의 동북아 R&D허브로 조성된다.

④ 교육·연구환경 개선 연구실적 향상

2003년 김인세 총장 취임 이후 교수들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성과급을 대폭 증액했다. 아울러 820명이던 전임 교원을 1,067명으로 증원하였고, 교수 충원율을 전국 국립대 최상위권인 96.1%로 개선하였다. 또한 자체 Post-Doc제도를 도입, 점차 증원할 계획이며, 조만간 인문사회 및 기초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SCI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기준으로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④ 국책지원사업 대거 유치

2003년 9월 이후 국책지원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부산과학단지 R&D혁신 클러스터, 누리사업의 부산광역시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혁신인력양성사업단과 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동남권부품소재산학협력혁신사업단, BIT융합산업화지원기반구축사업단, 지방연구중심대학지원사업의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 등 20여 건 총 4,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였다.

④ 양질의 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

교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교수학습방식의 첨단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양교육원을 발족하여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공과목 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재이수 조건 강화, 기이수 교과목 자율삭제제도 폐지 등 학사관리체제를 엄격하게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김유근(부산대학교 기획협력차장)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허브 조성

-첨단 의생명과학캠퍼스

부산대학교는 양산 제2캠퍼스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허브를 조성한다. 특히 제2캠퍼스는 캠퍼스 전체가 첨단 의생명과학단지로 조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대 양산 신도시 34만 평에 조성되는데, 2004년 9월 1단계 공사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치의학전



▲ 부산대학교 양산 제2캠퍼스 조감도

문대학원 건물은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실험실 등을 각각 갖춘 7층, 총 연면적 2만 2천 719㎡ 규모로 2007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는 대학단지(의·치의학전문대학원, 생명과학, 첨단과학 분야)와 제2대학병원, 생명실버산학단지, 첨단산학단지, 생활단지, 대학광장 등으로 조성된다. 대학단지는 11만 5천 평 규모이며, 제2대학병원은 의과계병원, 치과계병원, 간호센터로

구성된다. 첨단산학단지에는 IT, BT, ET, NT, MT 및 융합기술을 뒷받침하는 첨단시설이 도입되고, 생명실버산학단지에는 연구시설, 생활·문화·의료지원 시설, 실버용품신기술개발센터 등이 조성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건물은 '친환경 그린캠퍼스' 조성 목표에 따라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태양열과 지열로 충당하는 '복합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빌딩'으로 조성된다. 건물들의 옥상에는 각각 50kW짜리 독수리 날개와 파도 모양의 패널이 설치되며, 이 발전시스템이 햇빛을 전기로 바꾼다. 자체 발전소 옥상에는 400㎡ 크기의 집열기가 세워져 여기에 모인 태양열이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 또한 땅속에 구멍을 뚫어 받아들인 지열은 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는 전력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세 가지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대체에너지 건물은 부산대 제2캠퍼스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05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435억 원(순수 공사비 기준)을 투자하여 5만 평의 부지에 700병상 규모를 갖춘 대학병원과 200진료대 규모의 치과병원, 170병상 규모의 간호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총 공사비 480억 원이 소요되는 150병상 규모의 어린이병원도 건립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현재의 과별 진료를 지양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찾아가는 전문진료센터와 클리닉체제의 진료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병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제2캠퍼스의 생명실버산학단지 및 의료IT산학단지와 연계하여 제2캠퍼스를 고부가가치형 의·생명과학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8년 9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부분 개원하고, 2011년 3월에는 치과병원, 간호센터를 포함한 대학병원이 완전 개원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과 재활병원도 정부지원으로 건립되며,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이러한 부산대학교 발전계획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일의 세계적 연구그룹인 프라운호퍼 연구그룹의 일부 연구소를 제2캠퍼스에 유치하고 의생명 분야의 다른 연구소와의 협력관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나노·바이오 분야 연구의 메카로 부상하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는 나노/바이오 특화전략을 견인할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이 특화·육성된다.

④ 나노과학기술대학-나노과학기술의 선두 주자

나노과학기술대학은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단과대학으로, 나노특성화대학으로 중점 육성되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은 다양한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에 활용되며,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밀양 캠퍼스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인 나노밸리(Nano Valley)를 구축하여 최첨단 나노실험실습교육, 나노특성화교육을 수행한다.

④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자원과학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생명자원과학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학문으로서, 최근에는 바이오 소재 생산, 육종, 가공, 바이오 환경, 유통, 경영,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위한 휴양산업, 바이오자재 생산 산업 등과 연계된 복합과학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밀양캠퍼스에 신설된 생명자원과학대학은 21세기 성장산업인 생명자원과학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생명공학(BT), 정보화기술(IT), 초미세과학기술(NT)을 융합한 교육과 연구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는 내실있는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교육원을 신설하여 재학생과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 이수를 진행하고, 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매년 60명 안팎의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등 외국 자매대학 파견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2006년 4월 현재 339명에 이르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미국 UCLA, 캐나다 UBC(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중국 푸단대학교 등 20개국 110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들 교류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교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학생교환 프로그램, 단기파견 프로그램, 공동연구, 학술자료 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석학초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4년과 2005년에 한 차례씩 노벨상 수상자 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한편, 우수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유치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순수외국인 학생 70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중국협력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LG전자 중국지주회사(현지 법인)와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푸단대, 충칭대, 런민대 등 주요 대학과 학생, 교수, 연구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계적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GB · IFAM과 공동연구센터 설립



부산대학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GB 및 IFAM과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밀양과 부산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소 중의 하나인 프라운호퍼 IGB는 오는 5월 밀양캠퍼스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이에 앞서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9월 부산대-프라운호퍼-경남도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공동연구센터에는 향후 5년간 300억 원이 투입되어 첨단생물소재 및 BNT 분야의 동북아 R&D 허브로 육성된다. 부산대학교는 또 금속용 접착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FAM 연구소와도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부산대-부산시-IFAM 공동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5년간 28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독일 브레멘대학교와의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옥스퍼드대학교와 학술교류, 롤스-로이스와 공동기술연구



부산대학교는 지난 1월, 1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명문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학술교류의 향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옥스퍼드대학교와의 교류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다. 양 대학은 우선 올해부터 공과대학 간 교류를 시작한다.

또, 부산대학교 대표단은 지난 1월 세계적 동력시스템 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사를 방문하여 김인세 총장과 롤스-로이스 그룹의 릭 파커 기술연구부사장이 공동기술연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초효율 초경량 차세대 열교환기'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공동기술연구 결과는 롤스-로이스가 생산하는 항공·해양선박 및 에너지 분야의 제품에 활용될 예정이며, 부산대생을 위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 현지 인턴십 과정도 개설한다.

신산학협력 시대 개막, 국제산학협력체제도 구축

- 일류 기업체 진출 및 장학 혜택 확대, 기업체와의 협력시스템 강화

부산대학교는 경영개념의 신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LG전자와의 신산학협력, 삼성전자와 맞춤형 인재육성 정보통신 트랙 운영, LG전자 냉동공조에너지 전공 계약학과 설치 등 잇따른 변화와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하여 우수 학생들의 일류 기업체 진출 및 장학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체와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인력개발원을 개설하여 학생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 및 전문화를 꾀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산학협력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대학교, 롤스-로이스 그리고 나

이준찬(롤스-로이스 인턴십 이수자)

나는 아시아계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롤스-로이스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밟고 최근 귀국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인 영국 롤스-로이스사에서의 인턴십은 세계무대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는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영국 롤스-로이스사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부산대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인턴십 참가자 중 최고의 평판을 받았다.

롤스-로이스에서의 임무는 엔진 전자부품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정책을 제안·관리하는 일을 맡아 엔진의 전체를 보며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웠다. 인턴 기간 중 10가지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4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들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실제 활용되었다. 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술정책을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위원회 의장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기도 했다.

롤스-로이스사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대학과 롤스-로이스사 간 교류협정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글로벌 기업에서 실전을 맞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고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 롤스-로이스사에서의 값진 경험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 주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롤스-로이스사는 긴 역사만큼이나 견고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우리 대학이 아시아권 최초로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 2월 부산대학교가 롤스-로이스와 차세대 열교환기에 대한 공동기술연구합의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턴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본사에 배치되어 원활한 기술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엔지니어로 거듭나게 되며 부산대학교,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롤스-로이스와의 산학협력은 대학에서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가스터빈 엔진산업의 선두인 롤스-로이스사에 공급하는 열교환기 생산이 부산에서 가능해진다면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사회는 물론이고, 한국경제를 위한 win-win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④ LG전자 중국지주회사와 국제 산학협력

-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 및 LG-테크노 과정 개설 합의

부산대학교와 LG전자 중국지주회사는 새로운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한·중 인력을 양성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과과정을 도입했다. 특히,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LG전자 중국지주회사 및 중국 내 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능력 향상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협력시스템을 가동키로 함에 따라 부산대학교의 대(對) 중국 교류 프로그램과 국제화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해 9월 부산대학교와 LG전자 중국지주회사는 베이징의 LG전자 중국지주회사 LG R&D센터에서 김인세 총장과 손진방 (주)LG전자 중국지주회사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맞춤형 국제인력 양성·취업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국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산대학교는 앞으로 LG전자 중국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아 중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해외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맞춤형 학부·대학원 인력양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LG전자 중국법인의 연구비 지원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등 국제산학협력을 도모한다. 기업맞춤형 LG-테크노 과정 개설(계약형)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기술경영인을 육성하고, LG전자 중국법인 직원의 재교육도 부산대학교가 담당하게 된다.



④ 부산대학교-LG전자 맞춤형 신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산학협력 국내 첫 도입', 'LG CARE(첨단 냉동 공조에너지 센터)' 운영

부산대학교는 학부-대학원-연구센터가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양성 및 미래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004년 10월 LG전자와 신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LG전자가 원하는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4개의 코업(co-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학부과정에는 LG전자가 요구하는 '적임자(right people)형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에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LG 트랙'을 도입했다. 매년 30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LG전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방학 중에는 LG전자의 혁신학교인 '에어컨

사관학교' 입소와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LG맨"으로 훈련된다. 선발된 학생 1인 당 등록금 전액 장학금과 함께 생활비 지원 혜택도 있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법인이 추천한 유학생들을 선발해 'LG트랙' 학생과 장·단기 1대 1 멘토링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LG전자의 중견인력을 핵심 R&D 인력으로 재교육하기 위한 기업주문형 'LG R&D 대학원'도 확대 운영한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94년부터 LG전자와의 계약을 통해 기계기술연구소에 'LG-학산협동과정'을 개설하고,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학 중에는 한 달간 집중적인 재교육을 통해 R&D 석·박사 인력 150여 명을 배출했다. 특히 부산대는 LG전자 'R&D 대학원'에 전임연구교수 5명을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간의 신뢰를 확고히 하였다. 이 협약에는 기업의 높은 R&D 인력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공의 '계약학과제' R&D 대학원을 산학협력단에 신설, 산업체의 R&D 인력 양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신산학협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약제학과로 새롭게 도입된 Techno-MBA과정이다. 이 과정은 경영대학원에 LG전자의 차세대 경영진을 양성하는 경영학 석사과정을 계약학과(산학협력단에서 계약 체결) 형태로 설치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Knowledge Worker, New Management Leader'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일정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해외 선진경영기법의 습득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LG CARE센터(Center for Advanced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 Energy, 첨단냉동공조에너지 센터)는 인재양성과 신속한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냉동공조에너지 관련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석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LG CARE는 LG전자의 미보유 차세대 냉동공조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R&D 연구센터로서 장기적 원천기술과 단기적 애로기술을 연구한다. 연구팀은 글로벌 책임교수+LG 학산과정 대학원생+LG 트랙 학부생으로 구성된다.

④ 부산대학교-삼성중공업 산학협력 강화

부산대학교는 2004년 4월 삼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사내 기술대학' 운영 등 협력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이 산학협력은 양측이 해양·조선 부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수준 향상이 국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교육·학술·연구활동 수행 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공동활용 및 교류 확대, 산학협력에 의한 현장중심의 기술지도, 교육여건 확충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현장체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삼성중공업의 산학협력 사내 기술대학 운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반사업에 관한 협조 등에 합의했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의 상호교류와 인력,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조선·해양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은 학술회의,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고 기술정보와 관련된 제한

자료를 교환하며 협동연구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얻는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며 삼성중공업에서는 부산대학교 기계, 조선공학 계열 학생 현장실습 우수 학생들에 대한 인턴십제도를 활성화하게 된다.

부산대학교 전 강의실을 e-러닝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혁신 모델 강의실(샘플 하우스) 3곳 설치, 오는 여름방학 때 본격 공사



부산대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강의실을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등을 갖춘 e-러닝이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로 바꾸는 '강의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중 공모를 통하여 3개 업체가 설치한 3개의 모델 강의실을 공개하고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의 강의실 첨단화는 전국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첨단강의실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대학 전체 강의실을 첨단화하는 것은 부산대학교가 처음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200여 개 강의실 중 120개를 올해 중으로 첨단화하고, 나머지는 2007년 30%, 2008년 20%씩 리모델링함으로써 전 강의실을 최첨단시설로 전면 리모델링하게 된다. 부산대학교는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중 3개 설치업체를 1차로 선정하고 샘플 강의실을 설치케 하여 제2사범관, 생물관, 기계관에 각 1개씩 모두 3개의 샘플 강의실 공사를 마쳤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설치된 3개 샘플 강의실에 대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효율성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 개의 모델을 확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 강의실을 첨단화하게 된다.

한편, 강의실 리모델링의 순서는 단과대학별 발전계획을 평가하여 우수 성적을 거둔 단과대학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부산대학교는 이와 아울러 몇 개 강의실은 국제 화상 강의가 가능한 첨단특수 강의실로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며, 동문들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첨단 강의실을 구축한 다음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계획도 별도로 구상 중이다.